

2021년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10차
(速記録)

- 주관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 일시 : 2021. 11. 25.(목) 14:00 ~ 17:10
- 장소 : 서소문별관 1동 4층 회의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10, 센터프라자 808호

Tel) 02-537-0889 Fax) 02-738-0123



2021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 ◆ 일시 : 2021. 11. 25.(목) 14:00 ~ 17:10
- ◆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석자 (12명)
 - 위원장 : 000
 -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배석자 : 000 팀장, 000 팀장, 000 주무관, 000 주무관
- ◆ 심의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검토(1건)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3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3건)
- ◆ 검토사항
 -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검토(1건)
 - 허용기준(안) 검토(6건)
- ◆ 보고사항
 - 소위원회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보고(1건)

○ 000 팀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서울시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15건 중에서 심의 7건, 검토 7건, 보고 1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검토'에 대해서 연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000 주무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 000 주무관

남산골 한옥마을 내에 민속문화재가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외 4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제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과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50m 구간에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0조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있는데 10년에 한 번씩 저희가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해서 지난 2018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여 현행대로 유지되었고요. 14조의 지정해제에 따라 지난번 10월 28일에 현장조사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불가하다는 것인데, 보시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현장조사에서도 문제없다고 하고, 우리 조례상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저는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저도 미리 보내주신 자료를 다 봤는데요. 올라온 검토의견서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000 주무관

그러면 부결하고, 부결 사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사유 없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예전에 심의가 들어왔던 건인데요, 구체적인 설계도서가 없어서 설계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했던 안건입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되어 있는 장위동 김진흥 가옥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긴급보수사업을 보시면 안채와 사랑채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85



마당에 배수가 극히 나빠서 마당에 이끼 같은 게 많이 피고, 배수관 앞이다 보니 안채 기단석 같은 경우도 마당 쪽으로 약간 전도되어 있는 상황 이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가 누전이 자주 되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안채 마당이고, 여기가 사랑채 마당인데요. 사랑채 마당을 보시면 물이 이쪽으로 고이면서 이끼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배수구 우수 집수정 같은 경우가 주변 레벨과 맞지 않는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이고요. 그다음에 안채 마당의 물은 이쪽 협문 쪽으로 해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쪽까지 확인은 못 해보았지만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을 틀어봤는데 실제로 물은 시 우수관로로 해서 잘 빠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설계한 것만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사업관계자

그럼 설계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사랑마당이고, 사랑채 마당에 마당 배수형 유공관을 길이 파이 한 200짜리로 해서 13m 정도 설치하고, 빗물받이 4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마당 구배가 가운데가 약간 배부른 형상이어서 이쪽에 전체적으로 구배를 줘서 물을 이쪽으로 빼려고 하고 있고, 일부 기단 상부면 마감이 많이 크랙이 있고 균열이 있어서 이걸 교체하려고 하고요. 안채 마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마당 배수형 유공관을 설치하고, 빗물받이는 여기는 흠통에서 내려오는 선흠통이 있어서 그 아래쪽에 6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당 구배 조정용으로 마석토 다짐을 새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채 기단의 경우 이쪽 열에 있는 기단석들이 마당 쪽으로 넘어온 상태여서 해제한 다음에 재설치할 예정이고요. 마당 상부면도 그래서 생석회 다짐으로 같이 마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안채 부엌 쪽인데, 부엌 쪽 같은 경우 전선이 상당히 오래되고 배선이 불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전반도 교체하고, 계량기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실내부에 벽체나 천정에 있는 전선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쪽에 시 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쪽에서 물



을 흘렸을 때 잘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수 집수정에서도 이쪽으로 잘 흘러가는 것을 확인해서 일단 마당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만 잘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당 마사토 다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 정도 굵어낸 다음에 잡석다짐과 마사토 다짐을 해서 구배를 잡아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분전함도 오래되고 녹도 슬어서 이게 분전함 4개와 전기계량기인데 하나 교체해주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안채 부엌 이만큼에 대한 벽이나 천정에 있는 전선배관이나 전등 같은 것도 교체하고, 전열을 위한 콘센트나 스위치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내용을 잡았습니다.

○ 000 주무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앞마당 두 군데에 주로 우수처리가 되어 있는데, 뒤란이라든가 그쪽은 우수처리가 괜찮아요? 지금 화면이 있으면 그 반대편이요.

○ 사업관계자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아래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어서 자연배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채 마당과 사랑채 마당 같은 경우는 마당에 물이 고여서 잘 안빠지고 있어 일단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을 먼저 잡았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마당과 지붕 전체를 포함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바운더리를 줄 것 아니에요. 물 떨어지는 우수면이요.

○ 사업관계자

우수면 같은 경우는 지금 마당 면적이 대충 보니까...



○ 000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하려고 봐도 여기 치수가 없더라고요.
PVC 우수관이 200짜리인가요? 150짜리죠?

○ 사업관계자

200짜리입니다. 기존에 150과 200을 혼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 000 위원

예. 그런데 그 배관에 집수정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우수면적이나 지붕면적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물이 넘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대신 마당에 고여서 잘 안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배관은 PVC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발 유공관으로 바꿔서 땅속으로 스며든 물도 처리할 수 있게 잡았습니다.

○ 000 위원

깊이는 어느 정도 묻나요?

○ 사업관계자

깊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95cm 정도 됩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집수정이 4개씩 8개 묻여두는 건가요?

○ 사업관계자

사랑마당에는 4개가 들어가고, 안채 같은 경우는 지붕에 선흠통이 떨어지는 라인이 있어서 그쪽 위주로 잡아서 있습니다. 6개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릴이 조금 투박한 것 같은데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6/85



○ 사업관계자

마당 그릴 말씀이신가요?

○ 000 위원

예.

○ 사업관계자

일단 지표면에서 들어오는 물은 저희도 화강석으로 무슨 형태를 잡는 것을 고려해봤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면이 가장 컸고요.

○ 000 위원

안채에 누수가 돼서 전기공사도 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 사업관계자

지붕이요?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되고는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회천 부분에 살짝 누수가 된 흔적이 있기는 한데 이쪽이 안쪽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관 자체 전기배선 등이 너무 오래된 상태라 지금 정전도 자주 되고, 차단기도 자주 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채 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어서 안채 주방 쪽으로만 한정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안채 바깥 부분에 문제가 되어 있으면, 거기는 수리가 안 들어가고 전기공사만 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일단 시급한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누수가 돼서 전선에 대한 화재위험이 있는데 그건 고치지 않고 전선만 고치는 게 조금... 물론 오래된 거라고 하지만.



○ 000 위원

그런데 누수는 흔적이 있는데, 지금은 바로 누수가 복구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사업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하면서 이번에 내부 전선만 하는 게 아니고 전선관까지 교체하는 거라서, 벽체를 뜯어내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거라서 누수가 된다고 해도 크게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빗물받이하고 집수정의 차이가 뭡니까?

○ 사업관계자

빗물받이라고 똑같은 형태로 이런 것을 쓰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당에 있는 물을 받는 것이고, 같은 형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홈통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빗물을 잡아서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빗물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명칭 상으로 빗물받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사랑채 마당에 썼던 것과 똑같은 집수정을 쓰게 됩니다.

○ 000 위원

그게 집수정 아닌가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지금도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 사업관계자

안채 마당 같은 경우는 홈통이 떨어지는 부분에 집수정들이 없거든요. 그



러다 보니까 마당이 패어서 그쪽으로...

○ 000 위원

안채는 하나도 없어요?

○ 사업관계자

안채는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집수정 쪽에 있지 않고 그냥 마당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 000 위원

위치가 맞지 않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폐쇄하고 옮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기존 것은 깊이도 낮은 편이고 크기도 작아서 그것보다 크고 깊은 것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사랑채 마당은요?

○ 사업관계자

사랑채 마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집수정들이 크기도 작은 것은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물길을 잡아주기는 했는데 주변 지형보다 높게 서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물이 빨려들지를 앓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집수정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 해서 지나가는 관도 다발 유공관으로 같이 넣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안채하고 사랑채에 있는 기존 집수정들은 일단 다 메우고...

○ 사업관계자

예. 철거를 해내고 다시 배관작업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9/85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러면 17쪽에 안채에 빗물받이라고 하신 표에 보면 410에 510은 알겠어요. 이 뚜껑 크기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 밑에 규격 940은 뭘 말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940은 지표면에서 여기까지 깊이입니다.

○ 000 위원

그걸 빗물받이라고 하니까 제가 헛갈려서요. 그게 집수정인데...

○ 사업관계자

예. 빗물받이, 우수 집수정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크기가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 사업관계자

기존 것은 300에 400 정도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기존 것도 보면 제가 보기에 한옥에 있는 앞마당에 집수정으로서는 굉장히 거칠고 커서 크기가 크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개수를 많이 하는 만큼 마당에 들어섰을 때 보기가 거칠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보여주신 사진이요.

○ 000 위원

집수정 덮개를 좀 디자인이 되게, 문화재에 맞게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0/85



- 000 위원
예. 이게 참 보기가, 특히나 주택인데...
- 000 위원
그런데 여기가 넓은 면적이 아니니까 집수정을 철제보다는 그래도 화강석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아까 보니까 둘로 한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 사업관계자
이것 같은 경우는 시멘트로 뚜껑이 된 것입니다.
- 000 위원
시멘트는 안 맞는 거고, 제 생각에는 화강석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 사업관계자
예산이 충분하다면 디자인 그레이팅이나 아니면 화강석으로 할 텐데,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 000 위원
한옥인데 스틸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예.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세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한두 개 있으면 또 괜찮은데 6개, 4개 이러면 되게...

○ 000 위원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최근 10년간 보수이력에 보면 2016부터 2018년까지 '사랑채 마당 배수로 및 담장 보수'라고 해서 9,500만 원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됐을 텐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던 공사가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사업관계자

그때 공사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 000 주무관

회의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배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랑별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곳은 사랑별채이고요.

○ 000 위원

그러면 밑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 공사를 했다는 거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주무관

그때는 주로 담장 보수였습니다.

○ 000 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이 됐습니까?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리고 여기에 공사내용 안에는 저렇게 집수정을 새로 설치하고 나서 마당에 경사를 두는 게 일일 텐데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 사업관계자

구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면에 마당 구배를 위치를 줘서 다 잡아놓기는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 000 위원

단면으로 해서 이렇게 경사를 주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하네요.

○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처마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들어가는 위치로 잡기는 잡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현장에 보면 회참부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게끔 주둥이를 해서 되어 있나요?

○ 사업관계자

예. 쇠부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 마당 같은 경우는 쇠부리로 되어 있고, 안채 마당 같은 경우는 선흠통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위치에 맞게 설치했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13/85



○ 000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정비계획이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바깥쪽 별당채, 거기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기존에 바깥쪽에 되어 있던 배수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하면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물길이 틀려서 그런 건지...

○ 사업관계자

지금 보면 여기서 하늘색 실선으로 된 게 저희가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배관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외부는 배수가 잘 된다는 거고, 내부에서만 안 되는 거죠.

○ 사업관계자

예. 여기서 물을 흘려봤을 때 물이 잘 빠지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랑별채마당에서 나가는 것도 이쪽으로 같이 연결돼서 나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도면이 없어요?

○ 사업관계자

예, 없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앞마당에서 배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집수정의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경사를 잘못 잡았든가, 집수정 가까이가 집수정을 높게 해서 물이 채 못 들어가니까 마당으로 다시 역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사업관계자

예. 그런 것도 있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제대로 받는 위치에 못 있어



서...

○ 000 위원

개수를 늘릴 필요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안채 마당 같은 경우는 선홈통에 내려오면 그쪽 밑에서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 개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 000 위원

힘들지만 단면에 슬로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배관 도면도 같이 그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새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있던 것에서 어떻게 추가되는 건지, 보강하는 건지...

○ 사업관계자

기존에 있는 배관은 저희가 직접 땅을 파지는 못하다 보니까 추정만 할 뿐입니다.

○ 000 위원

이것도 심의 받았을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죠. 그 자료도 없이 또 이번에 하면 계속 땅만 파는 거죠.

○ 000 주무관

2017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있는데 그때 용역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 000 위원

거기에 도면이 있어요?

○ 000 주무관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도면은 회의자료 10페이지에 첨부해놓았습니다.

○ 000 위원

그것과 포개놔서...

○ 000 주무관

그것과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렇죠. 그거 해야 되지, 이번에는 나무로 하겠다고 또 이걸 해놓고...

○ 사업관계자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종합정비계획에 배수정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도 보면 마당에서 물을 이쪽으로 뺀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고요. 안채 마당도 물을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잡아 뺀다, 여기까지만 잡혀 있고, 실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수체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14쪽 같은 데 보시면 예전에 공사할 때도 물이 빠지도록 사실은 공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땅이다 보니 파여서 결국 들어 올려지는 거죠. 땅은 더 낮아지고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사업관계자

파이는 원인을 보니까 여기 쇠부리에서 물을 모아야 하는데 위치가 다르다 보니 그런 것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계속 떨어지니까 파여서 물이 누출된다 이거죠?
- 사업관계자
예. 그래서 침투수도 저희가 처리하려고 해서 다발관을 배관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 000 위원
오른쪽만 얘기했는데 왼쪽에 공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왼쪽에 별당 뒤쪽으로 2017년도에 공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도면에도 나왔지만?
- 000 위원
아니요. 오른쪽 아래입니다.
- 000 위원
오른쪽 아래가 예전에 했던 거고, 지금은 노란색이 이번에 하는 곳입니다.
- 000 주무관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곳이 사랑채 마당입니다.
- 000 위원
거기를 했다고요?
- 000 위원
그렇죠.
- 000 위원
상황을 모르는 거네요.
- 000 위원
그렇죠. 상황을 모르는 거죠. 공사했을 때 사진도 있었을 텐데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웬만하면 나가는 배관이나 이런 것을 집수정 같은 것을 보고 위치를 추정하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땅 속에 있어야 할 집수정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냥 물을 흘려서 통수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 000 위원

전기공사가 부엌 및 공양간에 있는 것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 전기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 사업관계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만 하면 크게 정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000 주무관

거주공간은 그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거기만 생활하시는 거예요?

○ 000 주무관

생활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 000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해 가지고 하는 거군요.

○ 000 위원

아까 그레이팅 뚜껑은 웬만하면 한 번...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 사업관계자

예. 그것은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남는 돈으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가능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작게 예쁜 걸로요.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 000 주무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다행인 게 지대가 마당보다 외부가 훨씬 낮아요. 일단 밖으로 나가면 배수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마당 안에서 물이 고이는 거죠.

○ 000 위원

그런데 어차피 흙을 다 걷어낼 거니까 치환하는 것까지 같이...

○ 000 위원

제 생각에 옛날에도 마당을 했겠죠. 그런데 유공관이 다 퇴적돼서 막히고, 기능을 못하는 거고, 마당 레벨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 000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흙이 많은 토질이면 유공관이 다 막아버릴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예. 아까 여기 보니까 30cm는 치환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당을 전체 30cm는 바꾸는 것 아니에요.

○ 000 위원

그러다 보면 흙으로 살짝 덮으면 계속 높아지기만 해서 오히려 그 물이 이쪽 본 구조체로 넘어오게 돼서 이걸 정확하게 몇 센티m 까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하라고 해요. 안 그러면 공사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시공할 때 마당을 한 번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설계 변경하는데, 지금은 일단 계약은 되어야 하니까 너무 우리가 잡고 있으면 안 돼요.

○ 000 위원

끊어낸 것을 분명히 사진으로 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 000 주무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니까 일단 계약행위를 하고 시공할 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조건부인가요?

○ 000 주무관

그렇지요.

○ 000 위원

조건부이면 아까 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면 작성하는 것도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야 나중에 추가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000 주무관

예.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20/85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그러면 조건부에 지금 집수정이 안채 같은 경우는 1개소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6개가 늘어나거든요. 필요로 하는 수량 등을 다 계산해서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표 좀 받으시고, 옆에 위원님께서 이 주택에 어울리는 것으로 마감처리를 하라는데 돈이 없어서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정리하면 개수가 좀 준다거나 해서 충분히 마무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세부계획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알겠습니다. 일단 설계도면을 보완하는 것과 시공할 때 문화재위원의 검토 조건을 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개화산 약사사 마당 정비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신청을 했는데요. 목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에 문화재 개요, 그리고 위치도, 주변사업 현황, 사업 추진경위, 설계개요, 도면, 이렇게 진행되고요. 먼저 문화재 개요는 개화산 약사사에 2구의 문화재가 있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 3층 석탑은 고려시대 말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1980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고, 대웅전 앞 마당 한가운데 약사사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는 약사사 석불입상인데요. 지금은 대웅전 안에 모셔져 있고, 처음에는 목조건물에 있다가 지금은 목조건물을 철거하면서 대웅전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석탑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됐다고 추정되고, 같은 날인 1980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호 약사사석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화산 약사사의 위치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데 개화산 안에 신라시대에 창건돼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현재 마당 한가운데 이 3층 석탑이 있는데, 마당에 예전에는 잔디도 깔려 있었는데 오래돼서 잔디가 거의 다 죽어서 지금은 거의 흙바닥이고 크기가 700에 1,200 정도 되는 탄석이



중간 중간 깔려 있습니다. 진흙바닥이다 보니 눈이나 비가 오면 진흙이 돼서 종교활동에도 지장이 많고, 신도들의 민원도 많고,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범위는 석탑에 5m, 5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간까지 건드리지 않고, 석탑 주변은 건드리지 않고 난간 바깥으로만 바닥에 탄석을 다 제거하고 블록을 전체적으로 까는 블록 교체공사를 하게 됩니다.

○ 000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불국사 등에 가보시면 금당 앞마당에 돌로 판석이 깔려 있는 것을 보셨어요?

○ 사업관계자

여기는 주지스님께서 석탑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하셔도 되는데 돌을 안 깔고 다시 배수가 잘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지, 대웅전 앞에 저렇게 돌을 깔 곳은 거의 없어요.

○ 000 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은 시공업체에서 오셨다고 하니까요.

○ 000 위원

돌도 아니고 블록을 깎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블록을 까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하시죠.

○ 000 위원

잠깐만요.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 내인데 실측설계사무소에서 와서 설계에 대한 도면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실측설계에서 설계한 게 아니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그러면 이걸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 000 위원

그러니까 판석을 까는 것 자체가 나는 적절치 않은데 끝까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석탑도 보호하고 뭐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돌을 까는 것은...

○ 사업관계자

여기는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 000 주무관

보호구역이 맞습니다.

○ 000 위원

발표자하고 우리의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000 위원

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측설계자가 해야 하고요. 심의에 올라올 때는 그 실측설계자가 발표를 해야 합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시고 심사위원들이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공사 자체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은 사실 잔디도 없어요. 우리 취지는 귀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려면 기존 전통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기에 돌판 까는 박석은 경복궁 같은 데나 깔지 잘 안 깔아요.

○ 사업관계자

그런 게 아니고요. 물리나라고 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돌이거든요.



○ 000 위원

알겠는데요, 문화재보호의 원칙이 기존 있던 전통 기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현대식 기법이나 다른 모습을 갖고 오기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처음 본 것을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데는, 전혀 문화재와 상관없는 곳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여기는 문화재 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측설계자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재료는 뭐예요?

○ 사업관계자

몰리나라는 장방형 블록인데요, 한 판이 1,200에 900 사이즈는 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찰에서 행사를 하는데 흙에서는 비가 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 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재 중심으로 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치 않아서, 시공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000 위원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깔려 있는 판석 있잖아요. 이것은 심의 받고 하셨어요?

○ 사업관계자

이것은 오래된 것이어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 000 위원

개인적인 자기 정원이면 거기에 대리석을 깔든 상관없죠. 전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런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 000 위원

예를 들어 사찰에 가보세요. 대웅전 앞에 저렇게 돌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스님이나 설득을 시켜서 아까 배수가 안 되면 배수공사를 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 지금 있는 잔디도 사실 없어요. 마당에 있고, 어떤 곳은 꽃도 막 심어놓는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놓는 게 오히려 품위가 오래 가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만 발표 하셔도 됩니다.

○ 000 주무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 000 주무관

일단 부결로 하고, 부결 사유는 ‘문화재 경관 훼손 및 설계자격 미달’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 광진구청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 문화체육과의 양인호입니다.

저희 광진구청에서는 이번에 ‘화양동 정자마당 휴게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문화재 담당자로서 문화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업체에서 나오셨는데 그쪽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양동 느티나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었고, 지정은 1973년에 되었습니다. 느티나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이지만, 화양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7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주변에 총 7그루의 나무들이 함께 자라고 있어서 그 특수성 때문에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양동 느티나무와 관련해서 조선전기에 폐위된 단종, 또는 조선말에 명성황후와 관련된 설화들이 좀 있지만 문화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 번의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16년에 시행한 느티나무 복원정비사업인데요. 총액은 2억 원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갔고, 왼쪽 사진처럼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른쪽 사진처럼 구조물과 휴게소를 만드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2019년에 있었던 수목정비공사인데, 이때는 자연재해로 나무가 많이 훼손돼서 훼손된 가지들을 정비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술을 하거나 영양 공급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넘어가시면 저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한 게 문화재 자체를 현상변경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휴게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사업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관련하여 심의를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 대상지에 ‘화양동 골목길 재생’이라고 해서 기존 노후 주거지와 그 지역 골목길의 브랜딩을 설정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양동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골목길, 화양동의 중심성을 확보하자는 부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지 주변을 보면 느티나무 주변에 화양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또 현수막 등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안건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현재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인체계를 정비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담아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6/85



도 설명드렸듯이 2016년에 정비를 하면서 쉼터를 조성했는데요. 이때 마을금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쉼터 공간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을 문고의 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것도 없어서 현재 이 공간의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커뮤니티를 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쉼터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나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양동 골목길의 어떤 부분을 특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살리는 부분, 그리고 느티나무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느티나무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쉼터의 문제점 부분이고요. 그리고 느티나무 주변에 산성 쌓기 방식으로 돌로 된 앉음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음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앉기가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조그마한 벤치 같은 것도 군데 군데 설치해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에서의 휴게공간을 원하는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커뮤니티 확충 차원에서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계획안은 크게 보면 기존 느티나무 주변에서의 쉼터공간을 정비하고, 느티나무 주변의 앉음벽들을 개선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상정했습니다.

○ 000 위원

원래 있었던 것을 개선하는 거죠?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새로 뭘 더 만드는 것은 아니죠?

○ 사업관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27/85



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000 위원

그러면 현황하고 개선안을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심의할 내용들도 많으니까요.

○ 사업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계획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테이블 벤치와 문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별도의 구조물과 내부의 벤치 조성을 통해서 개선을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느티나무 주변에 앓음벽들을 전반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편한 구조로 만들고, 하부에는 라인 조명을 넣어서 기존의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기존에는 조명이 없었나요?

○ 사업관계자

기존에 벤치 부분에 조명이 없고 가로등 시설은 있습니다.

○ 000 위원

가로등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 사업관계자

가로등의 위치는 공원의 외곽 부분에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녁에도 그 가로등이 켜지면 거기가 어두워서 사용을 못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사업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주변에 오피스텔도 많고 야간에 그렇게 어두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안의 배치는 크게 보면 주민들이 설 수 있는 휴게공간들을 확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존에 문구에 의해서 막혀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시각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시각적 축도 부여하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반투명 재질의 상부 구조물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우체통’이라고 지역주민들의 사연을 담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쉼터 안에 확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재료는 목재인가요?

○ 사업관계자

벤치시설은 목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조물은 철제구조물에 관련 색으로 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앞음벽 개선 부분인데요. 기존 앞음벽들을 목재구조의 라인형 벤치로 개선하고, 야간에는 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해서 기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높이고, 또 야간에도 어느 정도 커뮤니티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벤치로 만들어서 라인에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나올지, 아니면 끊어서 부분 부분으로 적용하는 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있는인데요. 여기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담아주시면 관련된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저희 골목길 재생도 간략하게 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 절차에서도 대상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계획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적 장소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한옥 요소 같은 것들은 빼달라, 너무 어설피게 한옥을 재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대적인 계획으로 수립하고, 전반적으로는 문화재 중심의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 000 위원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안내판도 새로 디자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 사업관계자

그 내용은 현재 주민협의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들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안내 사이니지를 해서 지역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현수막 같은 것들을 일원화할 수 있는 계획을...

○ 000 위원

그럼 나중에 그걸 다시 심의에 올리실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느티나무공원에 안내판 같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알리게끔 마을에 대한 브랜딩 작업이 되면 '화양동 느티나무공원'이라는 빛포인트도 같이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이 되면 한 번 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000 위원

느티나무가 문화재잖아요. 그 특성을 반영해서 그것을 좀 더 드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영해서 한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걸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한 게 있나요? 그걸 못 느껴서요.

○ 사업관계자

그 골목길 사업을 통해서 기존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형상과 그 상징성을 통해서 화양동과 화양동 골목의 브랜드화, 브랜드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하는 부분도 저희와 향후 시행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브랜딩을 통한 형태화 같은 것들이 나오면 그 부분은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 등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들어가는 재료를 목재 위주의 친환경적 재료를 통해서 기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구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 (안)은 그냥 (안)일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 (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사업관계자

아니요. 저희가 이후 사업으로 마을의 브랜딩 사업을 하는데요. 브랜딩을 하게 되면...

○ 000 위원

마을의 브랜딩과 문화재는 다른 성격이 있으니, 저희는 문화재 측면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골목길 사업에서 브랜딩한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인데, 그다음에 브랜딩이 되면 그 (안)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지금 (안)을 제시한 것은 왜 제시한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심의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바뀔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하나요?

○ 000 위원

잠깐 제가 이어서 질문드리면, 20쪽과 21쪽을 보시면 20쪽에 기존시설 목록표가 있어요. 그다음 21페이지를 보면 안내판 있는 게 다 들어가요. 방금 말씀하실 때는 미정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 변경된 게 다 들어갑니다. 문도 있고 막 그러네요.

○ 사업관계자

이건 기존 사안이고, 빨간색 부분만 변경된 부분으로...

○ 000 위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뭘 하겠다는 건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사업으로 보면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한 부분은 기존 쉼터와 벤치 두 가지 부분이고요.



○ 000 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질문이랄까 의견을 드리면, 이게 문화재이고 여기를 잘 정비하는 것은 이 문화재를 돋보이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렇게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여기 책 빌려주고 하는 것을 없앤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이게 다 가려지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또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 사업관계자

추가적으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추가적으로 하시잖아요. 여기에 철골로 뭘 짜서 새로운 디자인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가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이 마을에 지금 문화재가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는 게 누가 와서 보든지 잘 보이게 하고 쉬고 싶게 만들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고 주변으로 앗음벽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앗음벽하고 차이가 뭘지 보니까 기존은 돌인데, 그 위에 멀바우 나무로 바꾸셨어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런데 어떤 불편이 있어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재질이 바뀌고 폭이 50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있는 돌에 중간 중간에 나무를 넣어놨잖아요. 그게 너무 좁다고 하면 그걸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닌



가요? 왜 밑에 돌 쌓아놓은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자연석 쌓기 해놨
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걸 다 없애고 새롭게 또 벽돌 쌓기 식으로 해서 왜 그렇게 바꾸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다 처
음에 공사할 때 자연석 쌓기로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사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만 딱 넣으시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000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플랜카드가 나무에 다 걸쳐져 있는 게 많
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이쪽 바깥에다가, 여기 000 씨도 있고 그런
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를 잘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
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도 식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수라든
가 투습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쪽도 중요하지만 이
700년 된 느티나무가 잘 보호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해주는 게 더 좋
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
히려 적극적으로 식생 조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시면 훨씬 더 의미도 있
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주변에 배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개선하고, 그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나는 플랜카드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 사업관계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디지털 사인 체계를 느티나무를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도로 쪽으로 향하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하
는 제안과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3/85



디지털 사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 사업관계자

쉽게 말하면 현수막 같은 기능을 디지털로 하는 것이고요.

○ 000 위원

디지털로 하면 야간에도 계속 빛이 나오는 게 되잖아요.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 광진구청

디지털 사인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중에서 현장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에 거주지역도 있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

○ 000 위원

다른 데 하시면 되잖아요. 꼭 문화재 옆에다가 그걸 하셔야 돼요?

○ 000 위원

오히려 나무가 딱딱 잘라지는 석재로 하지 말고 좀 예쁘게 한다든가, 자연에 맞게끔,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데다가 저렇게 각진 것을 딱딱 해서 저게 얼마나 예산 들여서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투습했다니까 그것과 다시 잘 맞춰서 저쪽에 나무 둘레에 했던 석재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바꿔주고, 그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 사업관계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는 그늘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또 구의 입장에서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중심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구조물 같은 게 많이 나와 있는 게 경관적으로나 또 의미적으로나 저해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골목길 재생의 방향성 부분에서는 문화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주민 편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그것도 다 좋은데, 첫 번째 목적은 나무가 고생을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래 또 잘 살아야 하고. 그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라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는데,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는 분이 그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문화재와 맞춰서,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그런 개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해오셨는데, 설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 000 위원

느티나무와 그 공간이 맞다는 느낌이 안 들고, 저건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파트 안에 놔도 되고, 어디 강가 옆에 놔도 되고, 그런 설계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느티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득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기존에도 천막이 있었는데 뭘 다시 해서 또 하는지 모르겠고, 50cm 간격으로 해놓으면 해가 들어올 텐데, 약간 루버 같은 효과는 있겠지만 원래 있던 천막이 그늘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여전히 만들면 또 몇 년 후에 '이용률 저하로 오랜 기간 방치됐습니다.' 하고 새로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 거죠.

○ 000 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했어요?

○ 사업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35/85

Email : sokgisa88@daum.net



2016년도에 했습니다.

○ 000 위원장

그것도 문화재 통과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와 관련 없이 한 겁니까?

○ 사업관계자

심의를 받았습시다.

○ 000 위원장

심의를 했으면 이걸 확 바꿀 게 아니라, 심의해서 한 거라면 여기에 거리 문고의 이용률이 적다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문고 아닌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황을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직선적으로 나란하게 저렇게 한 것은 자연스러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 000 주무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000 위원

하나만요. 광진구청에서 오신 담당자 분.

○ 광진구청

예.

○ 000 위원

이게 경미한 보수예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는 경미하지 않고 완전히 다 바꾼 거거든요. 방금 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발표하신 분은 실측설계사예요, 아니예요?

○ 사업관계자

문화재 실측설계사는 아닙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6/85



○ 000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에만 일반 하시는 분이 할 수가 있는데, 이 건 경미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이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세요?

○ 광진구청

저도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업체와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통해서 휴게실터의 디자인도 수정을 요청했었고요.

○ 000 위원

실측설계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문화재구역이잖아요?

○ 광진구청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이게 수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장치를 바닥을 고쳤을 때 이 수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2019년도에도 영양제를 주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바닥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거예요. 다 깔아버리니까. 나무를 위해서는 다 걷어내야 해요. 그게 진흙탕이든 뭐든요.

○ 000 주무관

바닥재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저번 주에 기념물분과에서 심의 하셨죠?

○ 광진구청

예.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투습성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그 위주로 하셔야 된다고요. 추가적인 뭘 저는 제발 좀 안 했으



면 좋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무의 존재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 000 위원

앉아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자께서 자연석 거기가 앉아있기 불편하다 면서요. 축축하고 높이도 안 맞고. 그걸 약간 변형을 거쳐서 편안하게 해 주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다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은 경 미한 게 아니라 리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를 완 벽하게 제대로 받아야죠. 담당자가 잘 판단하시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재생사업이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려해서 담 당자께서 프로세스를 진행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000 위원

문화재 심의의 의도를 잘 모르셔서 이렇게 멋지게 계획을 하신 것 같은 데, 오늘 충분히 취지를 아셨으니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000 위원

담당자 선생님과 잘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광진구청

예.

○ 000 주무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이 건은 보류로 할까요, 부결로 할까요?

○ 000 위원장

부결해야죠.

○ 000 주무관

문화재 경관 저해로 하겠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지는 삼선동 1가 291-6번지로서 이격거리는 삼군부 총무당으로부터 24m 정도 떨어져 있고, 높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선부터 높이 5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당은 아래쪽으로 5m 정도 더 떨어져 있고, 그래서 토탈 총무당으로부터는 10m 정도 위에 높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총무당 쪽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총무당 쪽에서 신청지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나무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살짝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나무가 많아서 저희 현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 000 위원

나대지에 설계하신 건가요, 아니면 철거하고 설계하신 건가요?

○ 사업관계자

지금 철거는 다 되어 있고요, 현재 상태는 나대지입니다.

○ 000 위원

2층짜리 건물 중에 2층이 살짝 보이는 건가요?

○ 사업관계자

예. 지금 저희가 2층을 올리면 살짝 보입니다.

○ 000 위원

1층도 조금 보이네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지붕이 살짝 보이죠.

○ 000 위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39/85



스토크 마감 색이 무슨 색깔인가요?

○ 사업관계자

아이보리색입니다. 그냥 맛있게 아이보리가 아니라 가로석을 넣고 아이보리로 했습니다.

○ 000 위원

징크마감하고 스토크 마감을 혼용해서 지금 표시하셨는데, 징크가 어디에 있나요?

○ 사업관계자

징크는 건물 테두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파라펫 부분입니다.

○ 000 위원

캐노피도 징크인가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프레임을 안 돌리면 그쪽으로 나중에 물이 들어가서 하자가 나기 때문에 프레싱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 000 위원

여기는 아까 밝은 색 아이보리라고 하셨는데, 그 전 도면에서 여기 짙은 것은 무엇인가요?

○ 사업관계자

이건 그림자입니다.

○ 000 위원

아이보리색이면 문화재 쪽에서 보았을 때 꽤 밝게 눈에 확 띄겠네요?

○ 사업관계자

아니요. 그렇게까지 밝은 것은...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밝으면 조금 어렵고요. 관리 측면을 생각해서...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40/85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주변에 붉은색 벽돌조 건물이 있고 주택지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확
눈에 띠는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적벽돌과 페인트가 혼재돼서 되어 있습니다.
- 000 위원
현재는 나대지인데, 이 위치에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 사업관계자
단층 블록으로 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 000 위원
그걸 철거하고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미리 철거했다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그게 하자가 많아서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오래 비워놨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철거는 언제 한 건가요?
- 사업관계자
철거는 금년 6월에 했습니다.



○ 000 위원

건물의 최고 높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건물 최고 높이는 지금 이 건물 선까지는 5.5m이고, 파라펫 500 해서 토털 6m입니다.

○ 000 위원

그 주변에는 집이 어디예요?

○ 사업관계자

주변에는 바로 옆 건물이 2층 건물이고, 뒤에는 3층 건물이 있고, 1층이 있습니다.

○ 000 위원

단면도를 보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높이 검토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5페이지요.
대지가 문화재보다 한참 높은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여기에 보시면 지상 1층하고 3층 주택 전부 다 주택가이고, 층수는 1층에서 3층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 000 팀장

재개발은 안 해요?

○ 사업관계자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 000 위원

6페이지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둘러쳐 있는 모서리 부분이 신청지잖아요.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2/85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층짜리 건축물하고 이것이 높이가 아까 단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단면상에는 이 부분이 표시되어 있고, 직선거리로 해서 이 부분이라서 저 옆집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000 주무관

지적도를 보시면 A하고 B가 섹션이 달라서요.

○ 000 위원

아, 그렇게 잘라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아까는 재료가 다 똑같다고 하셨는데, 13페이지 도면에는 콘크리트 면처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 사업관계자

아, 죄송합니다. 스타코 마감이라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콘크리트 면처리는 튀어나온 돌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처마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 000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 000 주무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3/85



(사업관계자 등 퇴장)

이번 안건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 사업관계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청소년 수련시설 증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국립공원 북한산 도봉사무소의 탐방시설과장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산행문화를 새롭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신청인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장이 실시하며, 대상 문화재는 서울시 기념물 28호인 ‘도봉서원과 각석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도봉구 도봉동 404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봉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한 동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대지면적은 약 29,000㎡이며, 총 연면적은 7,632㎡, 건축면적은 4,662㎡가 되겠습니다. 그중 이번에 증축되게 되는 연면적은 4,638㎡이며, 건축면적은 2,056㎡, 건폐율은 14.7%, 용적률은 18.79%,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000 주무관

경위와 목적은 생략하시고 바로 계획을 설명해주세요.

○ 000 위원

문화재와의 관계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저희 사업 대상지는 주변에 도봉서원과 각석군이 구성되어 있고, 인근 보호구역 내 50m 구간 안에 본 사업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000 주무관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4/85



노란색 부분은 보호구역이 아니라 문화재 구역입니다. 여기에 보호구역은 없습니다.

○ 000 위원

기존에 도봉청소년수련시설 A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앉힌 것을 보니까 원래 건축선에 안 맞게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원래 있던 A동과 평행하게 안 되어 있고요.

○ 사업관계자

지금 증축동이 왜 이렇게 안 맞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000 위원

예.

○ 사업관계자

사실은 이런 건축물이 도시지역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국립공원구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연친화적으로 최대한 자연에 묻히게...

○ 000 위원

그 각석이 들었다고 자연친화적이에요?

○ 사업관계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지 자체도...

○ 000 주무관

각자바위 때문에 조금 꺾은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도봉청소년수련시설 A동이 연간 이용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큰 증축이 필요한가요?

○ 사업관계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 기준으로는 3만 명 정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수요는 그것보다 30% 정도 더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지 않고, 특히나 기존에 청소년수련시설 A동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문화나 자연생태, 환경 등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 000 위원

청소년교육이라 함은 자연, 문화, 생태, 역사를 잘 보존하고 주변에 저런 것을 안 짓는 게 교육 아닌가요? 도봉구 안에 그렇게 지을 땅이 없습니까?

○ 사업관계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혹시 제가 사업목적 중의 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 000 위원

그런데 목적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문화재와의 관계만 설명하시면 되지, 얼마나 훌륭한 사업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 사업관계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때문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최근에 북한산국립공원 중심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2개 정도 국립공원이 있지만 그중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50%가 북한산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청소년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또 전문구조자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검토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특성상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훼손 등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해당 위치에...

○ 000 위원

취지는 다 좋은데, 사실 어떻게 설계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지에 자연 환경이 좋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한 이유도 그런 이유를 붙일 수 있는데, 재료도 그렇고 적절히 환경친화적인 곳은 많거든요. 또 현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건축가들의 competition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텐데, 경쟁 없이 한 이유가 있나요?

○ 사업관계자

위원님, 저희가 최초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 000 위원

이게 당선작이에요?

○ 사업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선업체에서도 같이...

○ 000 위원

당선되었는데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었다고요?

○ 000 위원

그럼 나는 이거 점수 안 줘요. 내가 보면 산속에 이렇게 지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친화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년 기숙사 형태로 짓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내가 볼 때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공원이 공동으로 우리가 잘 아끼고 하는 부지에 저런 것을 한 번 지어버리면 50~60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면 환경보호가 아니라 훼손 아니에요? 저것을 미니멈시킬 수 있단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 000 위원장

한국 컴퓨터 속 기 사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47/85



여기가 기념물 문화재와 8m 떨어진 곳이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가깝게 저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좋은 (안)이 오더라도 돌이 문화재인데 10m 이내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각석군의 일부인데 이것을 건물이 끊어버리잖아요.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 000 위원

설계자께서는 공고가 나온 대로 하셨으니까 설계자 분께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이런 기획이 저는 정말 황당해요.
기왕에 나와 있는 주어진 대지에 최선을 다해서 설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저희가 우려하는 것에 대한 답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설명은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 000 주무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이런 경우에는 대지 선정부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 000 위원

맞습니다.

○ 사업관계자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릴 수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집단시설지구로 그나마 도시지역과 국립공원을 완충하기 위해서 일부 지정한 곳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제일 끝단이다 보니 피치 못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000 위원

기왕에 지금 청소년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려면 실제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밧줄도 잡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안전교육이 되지, 여기 실내에서 영상을 보고 하는 게 무슨 산에서의 안전교육이 되겠어요?

○ 사업관계자

예. 위원님,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중앙에 있는 이 시설 자체가 통으로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돼서 사실은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수료한 후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어지게 진행됩니다.

○ 000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아이디어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사업관계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 000 위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실내 변경을 하셔도 되잖아요.

○ 사업관계자

성격 자체가 거기에서는 그냥 앉아서 받는 시청각교육이나 만들기 교육 같은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뭔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저희도 어지간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최소화해서 하겠다는 일념으로 검토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 000 주무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 000 위원

그런데 하여튼 주변 자연환경 조화가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원래 취지에...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아이들 기숙사 같이 해놓고 마당 안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시대에 안 맞아요.

○ 000 위원

건물 모양은 둘째이고, 문화재에서 10m 이내여야지, 문화재는 바위 하나인데 그러면 말이 안 돼요.

○ 000 위원

그리고 시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용이 안 되면 다른 산에 가면 되는 거지, 왜 도봉산에 꼭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돼요?

○ 000 위원

그 건물도 또 커요. 일단 이건 어렵죠.

○ 000 위원

이건 반으로 줄여 와도 힘들 것 같은 상황입니다.

○ 000 주무관

이 건은 부결로 정리하겠습니다. 부결 사유는 문화재 경관 훼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 사업관계자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0/85

Email : sokgisa88@daum.net



안녕하세요. ‘가회동 31-65번지 한옥 신축공사’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한옥에서 일부 증축하고, 지하를 새로 증축하면서 한옥만 봤을 때는 개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부재를 해체한 후에 지하를 증축하고 재조립하면서 일부만 면적을 조금씩 증축하는 공사라서 허가권자와 상의 끝에 증축과 개축이 같이 올 수 없어서 신축으로 공사 종류가 정해진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1층 한옥이 있었고, 지하에 일부 불법 증축으로 주차장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구요. 전체를 해체하고 지하를 증축하고 재조립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구 단위에 맞춰서 진행됐고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쪽에 이준구 가옥이 있어서 옆 필지를 건너뛰고 저희 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구역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심의를 받게 되었고요. 저희 최고 높이 제한 맞춰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 000 위원

여기 한옥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어지면 건물하고 높이차 어떻게 되나요? 더 높아지나요?

○ 사업관계자

기존 레벨에서 최고 높이가 한 300 미만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요.

○ 000 위원

옆에 건물보다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옆에 건물의 최상부 높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지 레벨 차이는 한 1m 정도 나고요. 옆 대지와도 레벨 차이가 있고요.

○ 000 위원

여기가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 000 주무관

이준구 가옥이 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여기 이 건물하고 비교하면요? 여기가 더 높아요?

○ 사업관계자

거기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지하 때문에 굴토 레벨은 5m 미만 4m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인접대지에 노후된 한옥이 있는 거라서 저희가 굴토 심의 진행하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 000 위원

서울시 한옥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짓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이것을 짓고 나서 목적이 주거용이에요, 산업용이에요?

○ 사업관계자

용도는 전시와 한옥체험원.

○ 000 주무관

관광숙박업입니다.

○ 000 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사업관계자

일반개인소유자입니다.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2/85

Email : sokgisa88@daum.net



여기 A-1의 11쪽 정면 나오는 부분에 이준구 가옥 가는 길가에 이 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셔터가 들어갈 겁니까?

○ 사업관계자

아니요, 오픈된 공간으로...

○ 000 위원

저 대문의 담장 높이가 2.5m가 넘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어요?

○ 사업관계자

길에서요?

○ 000 위원

길에서 2.5m가 너무 높은데.

○ 사업관계자

그것은 따로 지적은...

○ 000 위원

보통 서울시에서 2.1m보다 낮추라고 하거든요. 1.8m면 더 좋고 2.1보다는 낮았으면 하는데 저렇게 하면 길에서 상당히 답답해 보일 가능성이.

○ 000 위원

아직 한옥심의는 안 받으셨죠?

○ 사업관계자

심의끝났습니다.

○ 000 위원

지적이 없었냐고 묻는 겁니다.

○ 사업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53/85



지적은 따로 없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한번 받고 아예 반려가 돼서 다시 한번 재심의받은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전면부에 신축으로 공정이 정리 되는 바람에 변경 전 도면이 빠졌는데요. 원래는 이쪽에 현재도 옹벽이 있고 이준구 가옥 담장이 높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계획에는 일자로 계획하고, 한식대문도 없었는데 재심의가 나와서 그것을 넣고, 이 부분을 계단에 맞춰서 내부 레벨 기준으로 높이 기준을 맞췄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레벨 자체가 1층 레벨이 이쪽 언저리이기 때문에 저희 땅 기준에서는 담장 높이가 높지는 않은데 길 기준에서 하기에는 저희도 가중 평균 레벨에 맞춰서 거기서 2.1m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여기 입면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왜 다른가요? 창호가 다르네요. 꽃살 창 비슷하게 여기에 유리에 꽃살 넣으신 거 뭘지 모르겠는데요.

○ 000 위원

창호 디테일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 사업관계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인데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 000 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자세히 보시면 꽃살인데요. 저희가 문화재심의라서 창호도를 뺐는데 한옥 심의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와서 상세를 실제 시공 사진과 첨부를 해서 통과가 된 창살입니다.

○ 000 위원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여기는 뭐예요?

○ 사업관계자

거기는 고정 방충망인데, 살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 000 위원

단면이라서 안쪽을 넣으셨구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문을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문 높이를...

○ 사업관계자

담장은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은,

○ 000 위원

그것은 옆집이랑 보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이 부분인데요. 현재 옆집 담장이 많이 높아서 여기도 마냥 낮추게 되면.

○ 000 위원

옆이 높아서 낮춘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군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비계를 보고 하시면 되겠네요.

○ 000 위원

지금 워낙 담장이 높이 있어서, 아마 한옥자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 000 위원

낮춘 게 저거죠?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5/85

Email : sokgisa88@daum.net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문화재 비레로 봐서는 대문도 너무 높고, 건물 높이가 다른 데 보다 높아요. 그래서 좀 어색해요.

○ 000 위원

대문의 비레가 일반적인 주택의 비레보다 약간 꺾충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른 곳을 참고해서 비레를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업관계자

이게 아마 폭이 좀 좁고요. 저희가 원래 대문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평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식 한식 대문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벽체에서 나온 부분을 만든 거라서 공간이 많이 협소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한식 내림 마루를 놓고 눈썹 지붕을 놓고 대문을 만든 거라서 협소한...

○ 000 위원

11쪽 거리 쪽의 입면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집이 새로 하면 담장까지 다 고치는 건데요. 여기 자연석 쌓기고, 이쪽도 그런 것 같네요. 이 집만 다르게 쌓기가 들어가는... 연장해서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밑의 디자인을 할 수 없을까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견치석 문양...

○ 000 위원

지금 거기가 견치석이에요?

○ 사업관계자

현재도 견치석이고요.



○ 000 위원

견치석 아닌 것 같은데.

○ 사업관계자

계획도 저희가 인접대지와 동일하게 견치석으로 가겠다고 제안을 넣었는데.

○ 000 위원

표에는 견치석이 아닌데요.

이게 저희가 인접대지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현재는 저희집 포함해서 견치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견치석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심의에서는 한식으로 하려면 평석으로 쌓으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입면을 고친 상황입니다.

○ 000 위원장

내 기억으로는 저기에 큰 탑이 있는데, 물론 탑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어디서 오긴 온 거고 상당히 괜찮은 탑이 있는데, 탑에 지장을 안 주고 건축이 가능할까요?

○ 사업관계자

일단 저희가 굴토심의 대상이어서 흙막이든 그런 것들 계획해서 안전에 지장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맞고요. 담장도 기존에 있던 높이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하는 거라서.

○ 000 위원

선생님은 실측설계사무소인가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대들보 사이즈가 왜 틀려요? X-3 보면 A1, 세 번째 양시도 보면 돼요.



○ 사업관계자

여기요?

○ 000 위원

예.

○ 사업관계자

이게 다른 데랑 다르냐는 말씀이신 거죠?

○ 000 위원

예.

○ 사업관계자

저희가 공정이 신축이긴 한데 원래 신축의 취지 자체가 원래 것 그대로 재조립하는 거라서요.

○ 000 위원

현대건설 그 옆에 비슷한 시청 건물이 있는데, 기둥이 작더라고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래서 송어택 같은 데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크면 기둥도 적절하게 보강을 해줘야 해요. 나중에 기울어지고 그래요.

○ 사업관계자

일단 대량 사이즈는 저희도 도편수님께 다 자문받고 부재 사이즈를 검토하는 거라서요. 한옥심의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쪽에도 대량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구조 보강하는 데는 저희가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시공하시는 분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58/85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위원

짜이 안 맞으면 나중에 찢어지고 하고 기울어져서요. 가중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서로 접합부 같은 게 맞아야 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크면 거기에 맞는 기둥 사이즈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둥 보강을 한다든지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짜 맞추는 거예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개축하고 증축을 두 개 하니까 신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 사업관계자

지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000 위원

지하층 같이 하려고.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사진 보니까 바꾸면 더 안 예쁠 것 같아서요. 옆에 있는 건물도 보니까 견치석 담장이고 해서 갑자기 여기가 전통식으로 가버리면.

○ 사업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심의에서 그렇게 나와서 저희는...

○ 000 위원

끝까지 다 견치적인데, 저기까지 다.

○ 000 위원

저는 있는 담장은, 담장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골목의 분위기를 유지해주시고 안쪽에서의 변화는 그렇지만 여기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실례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기존에 있는 대문이 한 이 정도 있었잖아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돌계단에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앞마당으로 바로 들어가게.

○ 사업관계자

그게 또 이용하시는 분께서 계단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계속 걸터앉고 담배꽂초를 버리는 그런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 000 위원

골목을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돌계단도 보니까 참 좋네요.

○ 사업관계자

그렇죠. 사실 지하만 아니면 다 유지하는데요.

○ 000 위원

기존 계단 돌은 버리나요?

○ 사업관계자

저희는 사실 재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60/85

Email : sokgisa88@daum.net



○ 000 주무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업관계자 등 퇴장)

○ 000 주무관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다수)

다음 안건들이 좀 있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속개)

○ 000 주무관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천도교 중앙대교당 기록화 및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에는 현상 변경으로 정비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의 첫 시작은 기본적으로 1921년 완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여 년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옛 모습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록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수리 보존되어 온 현황들에 대해서 과거의 모습을 찾고, 과거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에서 시작된 용역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중앙대교당에 대해서 기록화 사업을 통해 과거의 옛 모습을 찾고 역사적인 사건이나 관련되어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에 따라서 향후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단계입니다. 내용은 종합정비계획으로 되어있습디다만 크게 보시면 보존·정비 관리 기본계획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 대한 연혁을 보시게 되면 1905년도에 손병희가 천도교를 공포하면서 처음부터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지어야겠다는 것을 같이 공포합니다. 실제로 중앙대교당이 건립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위치, 규모 문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1918년도가 돼서 현재 있는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발의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1918년도에 기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919년도에 총독부에서 규모가 크다. 예산이 너무 많다. 반력을 시킵니다. 다시 1919년도에 예산을 축소해서 신축이 결정돼서 1919년 1월 14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이제는 지금 있는 형태의 건물로 짓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해 바로 3·1운동이 터지면서 터만 닦아놓고 공사를 못 하게 되고요. 3·1운동이 끝나고 다음 해 19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달에 공사는 끝이 나고 내부장식을 끝낸 상태에서 그 다음 해인 21년도에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건물이 됩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는 강점기 때 중앙대교당에 특별하게 일어났던 건축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록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이 1944년도에 대교당 옥상에 있는 콘크리트가 파손돼서 보수했다는 기록이 대교당 중수기라는 곳에 처음 나오는 기록이 되고요. 옥상 콘크리트가 되어있는 것은 다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49년, 55년, 65년, 65년에는 창문이 전체적으로 측면에 있던 창문들이 전부 다 9척에서 6척, 3척으로 구분되는 보수가 있었습니다. 73년에 대교당 공사가 좀 크게 됐는데, 대교당 중수기를 집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대교당의 목조 바닥이었던 것을 인조석 바닥으로 콘크리트로 교체를 해버리면서 안에 물방지 공사하고, 기초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가 사실 현재 있는 대교당의 현황과 같습니다. 이후로 86년부터 쪽 보수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첨탑부에 대해서 안전 진단까지 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단 이후에는 첨탑 부분 일부분을 보강하는 보강공사까지 진행이 된 상태로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한국에서 원체 많이 활동했던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했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하마마츠 시립 도서관에 있는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의 작품활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총 81건 중에 한국에서 작품활동 했던 게 36건 중 한국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로 이 건물이 잡혀있습니다. 배치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921년도 최초로 대교당과 중앙총부가 건립되고 그 이전에 1918년부터 21년 사이에 일대의 모든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두 개 건물이 있었다가 1924년도에 백년기념관이 건립되고, 1968년에 해체가 됩니다. 다음년도에 수운회관이 건립됩니다. 그리고 73년도에 삼일대교가 확산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토지들은 잘려서 현재 있는 배치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천도교 중앙 대교당의 건축적인 원형을 찾기 위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판단했던 자료가 현재 천도교 중앙총부에 소장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강점기 때의 도면이 총 14매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당 평면도, 도서관 신축, 부속서사, 대강당 중앙총부 사무실 평면도 그다음에 부속변소 및 낭하, 표정문 및 연와병 다양한 도면들이 있는데요. 이 도면들의 현재 상황은 천도교 자료실 안에 일단 도면을 통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관이 안 되고 쌓아놓고 있던 게 몇 해 전에 한양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관련된 전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한지를 깔고 해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상태이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구겨지고 박락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A1 사이즈의 도면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잡혀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나카무라 건축사무소 직인이 찍혀있는 도면이 총 8매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동일하게 부속서사 신축설계도라는 제목으로 크게 개념부터 평면부터 시작해서 상세도까지 있는 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도교부속변소 및 낭하 신축 설계도라고 있는데 아깝게도 부속서사는 실제 지어지지 않은 건물입니다.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고 오히려 천도교의 부속변소 및 낭하 신축 했던 부분이 지금 여기가 천도교 중앙대교당이고요, 여기가 중앙총부인데 여기를 중앙총부하고 중앙대교당을 회랑으로 엮는 한국식의 목구조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판형 목구조 형태의 회랑 형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배치구조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회랑의 흔적들은 현재도 중앙대교당에 남아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대교당과 관련된 그 외에는 강당평면도라고 해서 청사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총부 사무실 평면도라고 해서 중앙총부에 있던 것과 대교당에 도면이 있는데 앞서 보셨던 화장실 있던



부속변소 낱하 신축 설계도에 있던 회랑으로 연결되어있는 것하고 지금 계획도에 있는 회랑 연결부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마스터플랜을 잡았던 계획 도면이고 청사진 도면은 시공할 때 그것들을 현실 상황에 맞게끔 다시 조정한 도면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구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도면이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획했을 당시의 도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말고도 천도교 기념도서관이나 표정문, 사무소 기타 신설공사도의 도면들은 앞쪽에...

○ 000 위원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요?

○ 사업관계자

정비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 000 위원

앞에 크게 하실 필요 없구요. 목적이 종합정비계획 수립 아니에요?
나머지 정보들은 어떻게 하는 것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사업관계자

열심히 도면을 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기존에 밝히지 않았던 지하 구조에 대한 내용, 천장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확인해서 도면으로 그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러스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붕 자체도 일단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고요. 바닥에는 줄기초 있었던 것이 73년 바닥공사를 해서 거의 다 날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양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남아있는 것들을 해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문양을 잡고, 문양에 대한 것들, 마모되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범위를 파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봤던 중앙대교당에 대한 문화재 가치에 대한 것들을 검토했을 때 향후 중앙대교당의 옛 모습을 찾는 과거에 있었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앙대교당뿐만 아니라 천도교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재보존정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제언, 중앙대교당의 보존관리에 대한 제언,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언들을 계획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역사성이나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인지도나 부가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천도교 쪽에서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 계시기는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분류로 잡았던 것은 그러면 중앙대교당에 대해서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것들은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고요.

그리고 가치 정립한 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방법이 무엇일까로 잡았습니다. 하나씩 더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대교당의 경우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도 꽤 오래됐고, 올해가 건립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지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희가 놀라서 저희가 정의했던 것들은 종교, 역사성 그다음에 건축적인 학술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연관성,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로 추려서 과연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강점기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선도한 항일 종교단체였던 천도교의 주요 상징건물이고, 전국에 걸쳐 종교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천도교의 대표적 건물이다. 내부 기둥 없이 반아치형 천장구조를 채택하여 대공간을 마련한 평면구성과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세제선풍 건축화법이 동시대에 적용된 입면구성 등 유사사례를 찾기 힘든 역사적 건축물이다. 또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중 한 명인 손병희가 1905년 천도교 선언과 함께 대교당 건립을 제창했던 곳이며, 방정환이 주도한 어린이 인권 선언 등이 시행됐던 곳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사적 요건에서 충족해야 하는 것들에 저희는 일정 부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사적지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약현성당의 사례를 들어서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1, 2, 3 구역을 저희가 (안)을 잡아서 이런 방식으로 사적을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요.

두 번째는 동산문화재입니다. 사실 근대에 활동했던 다른 여러 불교나 심지어 천주교에서 많은 등록문화재와 유형문화재들이 나오고 있고, 지정되거나 등록되고 있는 반면에 천도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이유는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조차 거기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같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경전도 물론이겠거니와 강점기 때 있었던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너무 많은 잡지, 개벽이나 신여성 같은 그런 무수한 잡지들에서 당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는 시작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동산문화재 지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던 것들은 천도교 소장 문화재는 최소 50년 이상의 제작연대를 갖고 있는 문화재지정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1883년에 동경대전, 용담유사나 1894년의 포교문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국가지정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볼 정도로요. 국사책에서 봤던 게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적이나 잡지류 같은 경우 읽다 보면 그 당시에 천도교 사람들이 정치적이거나 민족운동 관련해서 했던 모든 행동이나 역사적 사건, 그다음에 그들이 주창했던 개념, 이념 이런 것들이 잡지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동산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헌사적으로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정과 등록가능한 체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중간보고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천도교 중앙대교당의 원지형이 과연 어느 형태였을까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던 결과로 기본적으로 최초 지었던 형태하고 지금의 원지형하고는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현재 창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 서울대 교구에 있는 사무실 쪽으로 해서 그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새로 지어지면서 땅을 덮어서 지금 통로가 반 정도 막혀 있거나 아예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서울교구사무실이라는 미등록건축물에 대한 정리가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원래의 지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창호복원 말씀드렸던 9칸 짜리였던 게 3칸, 6칸 됐던 것도 이렇게 9칸 짜리로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것이지만 등에 대한 위치의 바뀔, 저희가 중심으로 봤던 것들은 천도교 강당 안에 있는 문양들을 이전까지 계속 보수하면서 기준에 있었던 문양대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댔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린 형태로 되어있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조금씩 디테일하



게 남아있는 장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형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면화해서 없어진 곳들에 대해서는 전부 복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정류장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낡아 신축 설계도 뒤쪽에 있었던 회랑에 대한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회랑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1992년 짓자마자 바로 찍은 사진을 보면 회랑으로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토치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교당 뒤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흔적은 남아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토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옛모습에 대해서 복원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복원할 수 있는 근거는 토치 형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외 표정문 같은 경우도 도면은 일단 남아있고, 현재 당시 있었던 도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형복원은 가능하지만 위치가 이미 삼일대로 한복판에 표정문 있던 곳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위치표시나 이전에 표정문이 있었던 당시 건축적인 원형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면 어떨까 했고요. 백년기념관은 건물 자체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최초 건축가 이훈우의 설계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양대 최초 전신이었던 1회 졸업도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있는 흔적, 복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겠지만 바닥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백년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천도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미가 필요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대교당 전체에 대해서 기록화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문양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첨탑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구조보강이 된 다음부터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구조보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균열이나 이격 방식이 동일하게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진단해야 한다는 제안은 못 하지만 박리·박락이나 균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수를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광장 내부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문양이 없는 곳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수가 심각하게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표시



를 해서 경미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경미한 보수는 균열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양에 대한 복원도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경미한 보수하고, 특히 종탑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구요. 그리고 그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년 이후에 진단하게 되는 거니까 보강 이후에 어떤 식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그 당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외 방재시설 같은 경우 서울시유형문화재로 되어있어서 기본적인 방재환경구축은 되어있습시다만 약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추가한 거고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좌측에 서울대교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을 짜면서 사실 천도교 쪽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종로구청에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건물은 가능하면 철거하는 것으로 거의 문서까지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원지형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서울대교구사무실 없어지고 원지형이 회복되면 뒤쪽으로 해서 인사동 방향으로 나는 통로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활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행사나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굉장히 일회성 행사입니다. 가끔씩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서요. 인사동 기본 자체가 3·1운동과 관련되어있는 역사성 클러스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서 천도교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3·1운동과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는 패널 전시라도 대교당 안쪽 복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침탑부 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예약체계를 해서 통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는,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했구요.

수장고는 앞으로 동산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등록이나 지정 절차가 진행되면 훨씬 더 많은 문화재들에 대한 보존처리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수장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전시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안 쓰고 계시죠. 이렇게만 있는 상태라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 수운회관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차라리 수장이나 혹은 전시공간으로 적법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행계획을 잡았던 것들은 사적에 대한 것들은 지정보



고서를 작성해서 사적지정심의를 받는 것 그다음에 동산문화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존과학하고 동산문화재 전공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팀이 동산문화재 전체에 대해 문화재적 가치와 보존현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지정보고서에서 등록이나 유형문화재로 올리는 체계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구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잡혀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겨져서 철거가 내년에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원지형 회복을 하면서 동시에 복원정비나 구조보수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들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 000 주무관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사업관계자

예산까지.

○ 000 주무관

그것은 내용이 회의 자료에도 들어가 있으니깐요. 혹시 보완해야 되거나 의견 있으시면 반영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 000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위주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공법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당시 지었던 조적조 상태에서 그런 특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리고 아까 라틴크로스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동학 아니에요.

○ 사업관계자

예, 맞습니다.

○ 000 위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69/85



전통을 하시는데, 그 당시 어떤 생각에서 현대식을 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만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대로 정비계획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알겠습니다.

○ 000 위원

전시관 수장고는 어디에 설계해야 됩니까?

○ 사업관계자

저희가 건의드렸던 것은 현재 수운회관 지하에 있는 공간에 수장공간 제안드린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제안드린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보호구역 밖이라 혹시 사적이 된다고 했을 때 사적정비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대안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게 어떨겠나.

○ 000 위원

중앙총부라는 게 수운회관...

○ 사업관계자

수운회관의 중앙총부...

○ 000 위원

그러니까 그건데 아까 대교당에서 전시하는 부분을...

○ 사업관계자

그것은 패널 전시로 일단 안에 무슨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서요.

○ 000 위원

그냥 입구에다가.

○ 사업관계자

지금 지하에 있는 전시시설로 되어있는 것들이 아예 문을 달아서 사람이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70/85

Email : sokgisa88@daum.net



못 오니까 일단 거기라도 임시적으로 패널을 놔서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같은 것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 000 위원

천도교 측 입장은 어떠세요?

○ 사업관계자

대단히 환영하고 계십니다.

○ 000 위원

거의 최초로 제대로 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집하시고 하셨던 것들을 어떤 것은 선별해서 버리고, 어떤 것은 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부록이라도 다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게 기본자료가 돼서 다음 일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자료 찾고 하지 않도록 워낙 많이 찾으셨으니까.

○ 사업관계자

보고서에는 그것까지는 넣어놨습니다. 도면자료 아까 보셨던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 동산문화재 사적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록하고는 보고서에 다 수록해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

본문에는 보기 편하게 서로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수집하신 여러 자료를 부록으로라도 다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면작업에서 원형을 추정하고 그런 작업도 하셨는데 현황도면을 그리는 것과 별도로 지금 도면 중에서 어떤 부분은 원형이 있고, 어떤 것은 몇 년도에 변형이 됐고, 어떤 것은 어느 시기에 변형됐다는 것을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범례를 적듯이 해서 도면을 보면 연혁이 읽히도록 하는 도면을 작성하실 수 있나요?

○ 000 위원

도면으로 해서 바뀐 것을 한눈에 보게 해줘야 볼 수 있는데요.



○ 000 위원

유럽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말이라는 게 글이잖아요. 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고 이게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아는 건데 도면에서 한꺼번에 나와버리면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수리하거나 할 때 이게 ‘그때 보수 공사할 때 잘못했구나.’ 짐작도 할 수 있고 해서요. 가능하시면 도면도 작성됐으면 좋겠는데요.

○ 사업관계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식 같은 경우, 표현까지는 저희가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외에 외형적이거나 그쪽으로 크게 바뀌어 있다는 부분은 바닥하고 창호 정도입니다. 사실 바뀐 것에 대한 복원도는 이미 작성해놓은 상태고요.

○ 000 위원

현황도면이 있고, 원형도면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변형이 있었는지에 대한 도면은 잘 안 그리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력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도면화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건물 가운데 있는 탑, 가운데 있는 환기구인지.
환기 역할을 안 하죠?

○ 사업관계자

예, 안 합니다.

○ 000 위원장

그것은 왜 만들어졌는가. 환기 역할도 하지 않고 외관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콘크리트 구조에 천장 환기도 안 하면서 그게 왜 있는지…



왜 있다고 생각해요?

○ 사업관계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22년 건립부터 44년 철골 콘크리트 보수 기록까지의 내용을 저희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거의 추정에 가깝기는 한데요. 사실은 지붕 구조 자체가 지금 있는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지 않았을까가 사실 저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규정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000 위원

이렇게 자른 거 있어요? 이쪽으로. transverse 방향으로.

○ 000 위원

횡단면.

○ 000 위원장

큰 스패니 있는데 저게 콘크리트 구조의 지붕이라는 것은 이번 도면하기 전에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게 가능해요?

○ 000 위원

스패니 몇 m입니까?

○ 000 위원

18m.

○ 000 위원

18m 가능하죠. 저게 거의 아치형식이기 때문에 밀어주는 것만 잡히면 괜 찮아요. 양쪽에 추려서.

○ 000 위원

천장이 잘린 부분은 없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 막아버렸네요.

○ 사업관계자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73/85



예, 단면이 이렇게, 횡단으로 보면 이렇게 벽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지금 균열이 자꾸 어디에 생겨요?

○ 사업관계자

사실 여기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여기서 생깁니다. 특히 침탑 계단실
있는 이쪽이 가장...

○ 000 위원

계단실에,

○ 사업관계자

예.

○ 000 위원

그러면 메인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 사업관계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구조보강은 여기가 에이치빔이 설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000 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해도 저 건물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것
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실측을 하고 하는데, 나는 저것을 볼 때마다 의
문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실제 건물 가면 천장 부분이 훼손된 것이 너무
많아요.

○ 사업관계자

맞습니다.

○ 000 위원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74/85



그 보수는 안 나오네요. 사적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건지.

○ 사업관계자

아닙니다. 그것은 시행계획으로 같이 잡아놨습니다.

○ 000 위원장

2024년 전까지는 없네요.

○ 사업관계자

저희가 계획적으로 잡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복원정비계획에 해당하는 것들이 위에 마감부에 있는 문양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했던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잡아놨고요.

○ 000 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빨리 안 하고 2024년까지 기다려요?

○ 사업관계자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협의가 돼야 원지형을 회복하면서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소위 말해서 지반에 대한 우려를 낮추려고 했던 작업인데요. 이게 지금 천도교에서 협의하셔서 사실 내년으로 당겨진다고 하면 하나씩 더 당길 수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불법건물 하는 것은 외부잖아요. 교당의 외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거고요. 내부 천장의 훼손이 굉장히 심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동안에 다 못하고 일부분만 한두 번 보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3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 000 위원

물리적인 정보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벽돌, 콘크리트 이런 것들. 그 당시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의 어떤 공법과 유사하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어떤 공간과 물리적인 특성 같은 것을 담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보수를 하든 하는데요. 사실은 정보가 30% 정도 결핍성이 있어요.



다음에 연구하실 때 소위 시공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백데이 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돌아요.

○ 000 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사업관계자

사실 기록화 보고서라서 보고서에 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저희가 뺀 건데요. 벽돌에 대한 자원, 시공 방법이란 저희가 기본적인 기록화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말씀하신 콘크리트는 저희가 중성화 시험까지 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 000 위원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은 넣을 수도 있잖아요.

○ 000 위원

구조안전진단도 2011년에 있고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요약이라도 해줘야죠.

○ 사업관계자

그것까지는 넣어놨습니다.

○ 000 위원

저게 더 의미가 있으려면 100년 전에 했던 기술 같은 것들을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사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씩 언급하다 보니 제가 보면 밑바닥이 굉장히 허술해요.

○ 000 위원

일본 쪽 자료는 찾아보셨나요?

○ 사업관계자

사실 많이는 못 찾았고요. 하마마치에 있는 요헤이의 잡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록들까지는 봤는데 당시 있던 사진하고 검토해서 유사 사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보고서에 수록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외에는 요시헤이 사무소가 20년도에 불에 타면서 기존에 있던 자료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업했던 것들만 일본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 000 위원

실행계획에서 소요 예산은 있어요? 안 보이네요.

○ 사업관계자

소요 예산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되어있던 게 문화재 관련해서 지원 가능한 것들로 잡았고요. 나머지 동산문화재나 사적 관련해서 문화재지정이나 활용 관련 그다음에 수장고도 일부러 안 잡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천도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이라서 파란색만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로 최소한 해놓은 상태입니다.

○ 000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파악, 현상이 어떤지. 당시 어떻게 지었는지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하면 나오니까 그 내용을 최대한 빨리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기록화 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 000 위원

연도별 계획이 2022년에 당장 그 계획이 들어가나요?

○ 사업관계자

구조파악은 저희가 이번에 같이 했고요.

○ 000 주무관

이게 초안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메일로 다 보내드리기는 했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일단 조건부가결로 정리하고 심의지적사항 보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소위원회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회의 자료 보시면 맨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의하기 전에 심의가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허용기준을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고시했습니다. 그때는 12년까지 지정된 문화재만 고시를 했고, 13년 이후에 지정된 문화재가 허용기준이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중간에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허용기준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정리해 나가는데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8개 문화재인데, 허용기준안은 6건이고요. 6건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심의에 들어온 겁니다. 심의는 진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입장)

허용기준안은 두 개 업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번 안건부터 12번 안건까지 진행해 주시고, 제시했던 (안)과 저희가 현지 조사 나가서 의견 반영했던 (안)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삼층석탑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삼층석탑’ 같은 경우 간략하게 현지 여건만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탑이 위치한 가운데 주변으로 해서 낙성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탑 자체가 강감찬 생가지에 있었는데 1974년에 안국사를 비롯한 낙성대 공원사업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전된 석탑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공원용지에 소유현황도 공유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기준안으로 보시면 이게 2017년에 고시 나와 있는 현재 기준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보호구역인데 지정구역만 있어서 지역 구역으로 볼 때 반경 50m가 전체 심의구역으로 설정되어있었습니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78/85



다.

저희가 조정하고자 하는 (안)은 심의구역에서 보호구역이 설정되는데 사실이 부분이 공원용지고 무엇보다 삼층석탑에 대한 장소성에서 다른 건물들에 대한 이격거리와 조망성도 중요하지만 삼층석탑과 같이 조성된 안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통경축 확보와 주변 임야들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을 위해서는 조정된 (안)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모두 기존에서 확대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개별심의구역으로 현재 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공통사항 부분은 이 부분 자체가 다 개별심의구역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개별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항목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구역을 공통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안건은 '삼군부 청헌당과 연령군 이현 신도비'인데 두 문화재 역시 삼군부 청헌당은 정부 청사에 위치하고 있었고, 연령군 이현 신도비 같은 경우는 동작구 대방초등학교에 위치해 있었는데 두 문화재 다 67년도 육군사관학교 내로 이전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성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는 다른 시설은 없고 육사 내에 위치하고 전면엔 연병장 그다음에 측면으로 사슴 키우는 농장이 있고, 주변으로 임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안 역시 보시면 종전에 기준안이 되었는데 지정구역만 있던 부분에서 주변 지역의 모든 지역이 심의구역이었습니다.

조정안은 보호구역이 지정구역으로부터 약 30m씩 추가로 지정됐는데 이 거리를 포함하다 보니까 역사문화환경이 확대되기는 했는데 확대된 부분 또한 보시면 수목의 임야부분과 연병장 부분이 추가로 편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5m 짜리 국기게양대가 있는 것 빼고는 별다른 시설은 위치하고 있지 않은데, 이전된 문화재지만 삼군부 청헌당으로 주진입하는 주진입부와 전면부의 조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심의구역이 종전처럼 확대된 부분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 또한 전체구역에 대해서 개별심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소유자 또한 국방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도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별심의 없이 개별심의구역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공통사항 역시 최소화해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용강동 정구중 가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진입은 양쪽 도로를 통해서 주진입할 수 있는데, 배면에는 2000년도에 이미 18층의 용강래미안아파트가 기조성되어있는 부분이고 전면부 또한 2008~2009년 현상변경



을 통해서 2013년까지 해서 아래쪽에도 고층 주거군이 지극히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 40m 가량까지는 한옥으로 조성되어있는 공원이 아래쪽에 공동 주거시설에 대한 커뮤니티 시설이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도 용도지역을 봤을 때도 다 주거지역에 별도의 다른 구역을 보자면 중점경관관리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한강변 중점경관관리 구역에서 7층 이상 건축 심의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구중 가옥에 위치한 전면과 후면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현재 기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구중 가옥의 전면부에 한옥공원으로 해서 정구중 가옥으로부터 전면에 조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옥공원이 조성된 현재 상황입니다. 이 도면은 2012년 당시인데요. 12년 당시에 보면 뒤에 배면에 정구중 가옥 배면으로 공동주택은 이미 들어가 있었고 전면부는 한참 그때 용강 2 재개발 지역이 형성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그때는 개발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도 용도지역이나 다른 도시 현황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고요. 그때 계획이 반경 30m 외곽으로 해서 공동주거구역이 들어오고, 전면부는 한옥공원이 계획에 있었는데 그게 현재도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배면에 공동주거군이 주택하고 있기 때문에 용강동 정구중 가옥 배면으로 해서 10m까지 녹지가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구역 그다음 주진입이 이루어지는 구역은 보존구역, 전면부에 대해서는 당시에 현상변경이 이뤄지고 아파트 개발이 공사중이어서 전면부 전체가 다 심의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현재 개발 정도를 고려해서 용강동 정구중 가옥으로부터 주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존구역에 대해서 공통사항이 도로나 교량 등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면에 위치하고 있는 양호한 녹지부분과 전면 부분에 아까 보신 한옥으로 조성되어있는 부분, 기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특히 양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30m까지만 개별심의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 과정에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옥공원이 30m가 아니라 공동주택이 40m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한옥 전면부는 40m 안쪽까지 한옥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정구중 가옥 전면부에 조망축에서 열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30m 제시한 안에서 40m가 적절하다는 의견



을 주셔서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하는 기존의 전면부에서 기개발이. 이쪽 아파트들이 41m부터 43m 정면은 특히 55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층 주거군이 위치한 아파트까지는 빼고, 한옥공원이 위치한 부분까지 개별심의구역으로 설정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관사 독성전과 칠성각’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웅전이 위치해 있고, 측면 부분에 두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진관사의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 소유나 이런 것들 일부 임야 시설을 제외하고는 진관사 소유이면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진관사 관련 시설들입니다. 그다음에 용도지역상으로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라든가 특히 이쪽으로 자원보전지구 그리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서 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진관사 칠성각 독성전 같은 경우 주된 정각 건축물 부분만 지정구역 설정돼 있었고 2017년 고시 당시에는 실선으로 되어있는 부분까지만 허용기준이 기존에 고시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진관사 독성전과 칠성각 주변으로 해서 이 부분 대웅전을 포함한 경내 많은 부분들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약 50m 늘어나면서 약 9천㎡에서 약 2만㎡까지 두 배 정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보시면 진관사 독성전과 칠성각을 주변에서 인접하고 있는 하천과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1구역의 보존구역, 그 외에 구역에 정각이 위치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지붕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로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구역을 거의 대부분 유지하면서 기존에 7.5m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구역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확대되는 하천과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심의구역으로 기존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허용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000 주무관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안건별로 자유롭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퇴장하겠습니다. 마지막 2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1/85



(사업관계자 등 입장)

진행하겠습니다.

○ 사업관계자

첫 번째 말씀드릴 ‘상부암 석보살 입상’은 이번에 허용기준을 새롭게 만든 건입니다. 특이사항은 1989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된 문화재입니다. 2008년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지정되었고요. 위성사진 보시면 주변에 43번 국도와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준주거지역 그리고 문화재가 있는 곳은 도시계획시설로 완충녹지, 북동 측은 수도공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바로 전면에 11층 높이 그리고 측면 인접부분에 경로당, 1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소유는 구유지로 확인됐고 가시권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의해서 건축물 입면만 확인되고 한강 쪽으로 일부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보호각이 되겠고요. 석축으로 문화재가 있고 후면은 건축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처음으로 허용기준을 구상할 때는 한강 방향으로 광나루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한강 쪽은 가시권을 열어주는 것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허용기준을 마련했고요. 현지 조사 이전의 (안)이 되겠습니다. 현지 조사 의견에 위원님들의 큰 의견은 없으셨고 동일하게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 000 주무관

이 건은 17년도에 누락됐던 건입니다.

다음 안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계자

이번 건은 ‘기념물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입니다. 주거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1973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 000 위원

아까 설명을 해서 결론만 해주세요.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2/85



○ 000 팀장

결론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 사업관계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고시한 허용기준입니다. 지정구역으로 된 데 나무가 있고 보호구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고시가 난 이후 2018년도에 이만큼 보호구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호구역이 기존의 것에서 이만큼 확장되었습니다. 지정구역도 실제로 수간 폭 면적 이상으로 지정 높이 설정이 됐고요. 저희가 현지 조사 이전에 구상한 (안)은 수간 폭이 한 3배 정도 범위로 해서 다행히 공원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그 임야까지 해서 수간 폭이 한 3배 정도로 해서 허용기준안을 구상했습니다.

현지 조사 때 나온 의견들은 서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와 남측의 생육의 일조량을 고려했을 때 남측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빨간 부분을 포함해서 남쪽 부분을 추가로 심의 구역으로 설정했고요. 그 외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000 주무관

기준에 전체가 심의구역이었는데 개발이 이루어져, 개발이 이루어진 구역은 완화구역으로 풀고, 남서측만 일조 등을 고려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000 위원님.

○ 000 위원

저는 아까 수목,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해서 바람도 통하고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고 저기는 평면으로만 지정한 거죠?

○ 사업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실제 나무가 있는 지역은 이 정도입니다. 지정구역도 그것보다 면적이 넓게 되어있고 특히나 다행인 게 주변 공원으로 조성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는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나무의 생육환경을 고려하는데 저희가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 000 위원

나중에 여기 아파트를 할 수도 있겠네요.

○ 사업관계자

다행히 저희 공통사항에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놨어요. 대규모 건축, 건설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보통 도로는 빼나요?

○ 사업관계자

이쪽 도로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 000 위원

길어지니까 애매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사업관계자

도로가 이렇게.

○ 000 위원

도로까지도 묶을 수 없냐는...

○ 사업관계자

아니요,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 000 위원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같이 도로까지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 사업관계자

공통사항에 도로, 교량 등 유사한 사업은 또 위원님께서 검토가 가능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국 컴 퓨 터 속 기 사 무 소

A21/K1028/OR1

www.sokgisa.co.kr

Tel) 02-537-0889

Email : sokgisa88@daum.net

84/85



○ 000 위원

예, 의미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더 의견 없으시면 퇴장하겠습니다.

(사업관계자 등 퇴장)

오늘 심의결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검토’ 건은 부결입니다. 부결 사유는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사유가 없음.

두 번째 안건, ‘장위동 김진흥 가옥은 긴급보수’ 건입니다. 조건부 가결되었고 조건으로는 설계도면을 보완하고 문화재위원의 자문받아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안건, ‘약사사 삼층석탑’ 건은 부결입니다. 부결 사유는 문화재의 전통적인 경관 저해하고 문화재 수리법에 따른 설계 자격 부적격입니다.

네 번째 안건, ‘화양동 느티나무 공원시설물 정비’ 건은 부결입니다. 부결 사유는 문화재 경관 저해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 ‘삼군부 총무당 주변 단독주택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 ‘도봉서원과 각석군 주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부결되었고, 부결 사유는 문화재 경관 저해입니다.

일곱 번째 안건, ‘가회동 이준구 가옥 주변 한옥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 ‘천도교 중앙대교당 종합정비계획 검토’ 건은 조건부 가결입니다. 조건은 심의 지적사항 반영하여 종합정비계획 보완할 것. 심의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별도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건부터 열네 번째 안건은 ‘허용기준 검토’ 건으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 000 팀장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컴퓨터속기사무소

